

전략적, 탄력적 운용으로 경쟁력 높여야

장광열 무용평론가 · 한국춤정책연구소장

culture art

한국 무용계의 성장은 무용가들과 그 주변인들의 노력 외에도 문예진흥원의 꾸준한 지원에 의한 힘이 컸다. 새로이 출범하는 한국 예술위원회의 정책적 변화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지원 정책의 틀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전략적이고 세밀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흐름과 지원제도의 개편 필요성

한국의 춤 계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 춤 계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창작 작품의 질이 높아지면서 안무가들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교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형성된 데는 국가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와 함께 종래 대학 중심의 춤 활동이 전문 춤 단체와 독립 안무가들을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규모가 큰 무용 페스티벌 등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형화 된 공연양식을 벗어난 창작 작업에서의 다양성과 멀티미디어 아트의 발달로 인한 크로스오버 작업의 증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무용계의 성장, 무용 페스티벌의 활성화와 국제교류의 다양화, 일반인과 청소년 대상의 무용교육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무용의 중요성 확산 등이 이 같은 구체적인 흐름의 사례들이다.

일견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공연 횟수나 춤 인구 면에서 지역 춤 계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제작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몇몇 춤 전문 단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들 단체에 대한 차별화 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무용계의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직업 발레단을 제외한 일부 직업무용단들의, 노조 설립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침체된 분위기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대학 무용과들의 정원 미달 사태이다. 예

술성 높은 작품 창작의 선봉이 되어야할 직업무용단은 몇몇 광역시립 무용단을 제외하고는 노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흐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대학 무용과 미달사태는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예술 중·고등학교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무용예술이 일반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새로운 양상이다. 이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예술회관 등에 춤 공연이 확산된 것, 춤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전문 무용단을 표방한 단체들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공연활동 등에 기인한다. 전국 각 지역의 춤 공연 확산은 로또 복권 기금에 의한 문화소외지역 공연, 지역 문예회관 순회공연 등과 산하 단체를 가진 지역의 큰 공연장과 새로 개관한 공연장,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 전문 인력들이 포진한 시설들의 적극적인 춤 공연 유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춤 대중화의 흐름은 각 지역에서의 단순한 공연의 증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 계층과 목적을 가진 기획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겨냥한 해설을 곁들인 무용 공연 외에도 춤 강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 방학을 겨냥한 특정 지역에서의 기획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전문무용단과 독립 안무가들을 중심으로 춤 환경 제작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춤 공연의 주체인 무용단체나 안무가들 뿐 아니라 춤 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 - 무용음악, 무용의상, 무대미술, 분장, 공연대행 등 여러 부문에서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춤 공연 단체들은 종래 신작 위주의 공연 관행에서 벗어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 공연을 통한 레퍼토리화 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춤 전공생들을 대상으로한 공연 관행에서 벗어나 어린이나 청소년, 가족 관객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공연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제작비 확보가 용이한 지원 유형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외국 단체의 내한 공연 급증, 공연기획사와 외국 극장, 페스티벌과의 공동 제작 증가, 안무가 교류 확산 등 춤 부문의 국제교류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에만도 외국 단체들의 내한 공연이 100회를 넘어설 정도로 한국의 무용 시장은 국제무대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으며 컨템포러리 댄스의 해외 무대 진출이 늘어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무용계의 위상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한국 무용계의 성장은 무용가들과 그 주변인들의 노력 외에도 문예진흥원의 꾸준한 지원에 의한 힘이 컸다. 또한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지원 정책의 틀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예진흥원 32년과 무용 지원정책

‘무용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980년대 전후의 한국 무용계는 제반 환경이 크게 성장했다. 1962년에 이화여대 무용과와 국립무용단이 창단한 이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춤 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난 32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한국 춤 문화 발전과 춤 공연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문예진흥원은 설립 초기에는 주로 공연 활동을 독려하는 형태의 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 무용계 활성화와 젊은 무용가에 대한 지원 확대, 국제교류 사업과 예술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작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시작된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현재의 서울무용제)와 1992년 <전국무용제>는 페스티벌을 통한 한국 춤 창작활동의 기폭제가 됐으며, 1990년대 말에 태동한 Modafé와 SIDance 등 국제 무용페스티벌 등에도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이 투여됐다. 1993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젊은 안무가 창작공연>과 1999년부터 시작한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은 유능한 젊은 무용가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대학 춤 전공 졸업생들이 많아지면서 동인 그룹의 창단이 이어졌고,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은 전문 춤 단체들의 출범이 이어지면서 춤 사회 전반에 걸쳐

춤 공연 단체들은 종래 신작 위주의 공연 관행에서 벗어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레퍼토리화 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공연을 제작하며, 지원 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Repertory

여건이 변하게 되자 춤 계에서는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의 탄력적인 운용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균형 있는 지역 춤 발전을 위해 <지역순회공연>과 <우수 레퍼토리 공연>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기도 했으며, 국제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자 이 부문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지원 건수도 늘리는 등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액 다건 식의 지원 운용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면서 춤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 창작 공연 활성화였다.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으로 1985년부터 시행된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원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던 당시 춤 계 상황에서 대작 위주의 작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문예진흥원은 2000년대를 전후해 각 예술 장르간의 크로스오버 작업이 활기를 띠고 복합적인 형태의 공연이 많아지자 2001년부터 '다원적 예술지원' 부문을 신설, 실험적인 예술작업에 대해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춤 분야의 크로스오버 작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문예진흥원의 지원 신청이 1년 단위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기획된 우수 행사에 대한 지원 불가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예진흥원은 2000년에 '계기성 우수 기획사업'이란 지원 항목을 신설했고, 주로 국제교류 관련 사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또한 문예진흥원의 소극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씨어터 제로가 무용 전용극장으로 변신하여 각종 기획공연과 대관 공연을 확대한 것도 춤 공연의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춤 전용 극장 운영은 우선 춤 공연의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신진 무용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져오는 높은 부가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문예진흥원의 춤 부문 지원 예산은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가 전체 지원 규모의 25%나 차지할 만큼 두 행사의 비중이 컸다. 또한 전국무용제와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의 경우는 그 효용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32년 동안 문예진흥원이 시행해 온 무용 부문의 주요 지원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용축제 지원

문예진흥원은 한국 춤 계의 대표적인 춤 축제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를 비롯해 민간에서 주도하는 서울국제현대무용제와 서울세계무용축제 등 국제 페스티벌, 그리고 휴가 시즌과 맞물려 개최하는 부산여름무용축제 등 지역 춤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는 한 해 동안의 춤 부문 전체 지원 예산의 4분의 1을 넘어 설정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다. 또한 서울국제크로스오버 즉흥 춤 축제나 서울국제현대무용제와 서울세계무용축제

등 국제 규모의 페스티벌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 무용가들의 국제 교류 활동에 힘을 보탰다.

무용 공연 지원

무용 공연 지원사업은 춤 공연 전반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지원사업으로 가장 많은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하고 또 가장 많은 단체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주로 공연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뿐 아니라 각 지방의 순회공연, 그리고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우수 레퍼토리 지원 등이 이 항목에 포함되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공연 활동에 지원한 일반 무용 공연 지원 외에도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무용공연 순회지원, 우수 레퍼토리 지원, 우수 기획행사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특히 1985년에 처음 시행된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시 춤 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5백 만 원 정도였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선 지원금의 규모 면에서 배 이상이나 차등이 있어 무용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춤 창작의 제작 여건상 5백 만 원의 지원금은 전체 제작비에서 크게 모자랐던 상황이었으므로 작품 당 1천 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 만큼 대형 작품에 대한 무용가들의 창작 욕구를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젊은 무용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이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유망한 무용가를 조기에 발굴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작의 기회를 제공,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수 차례에 걸쳐 있었다. 그러던 중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문예진흥원은 젊은 무용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대거 확충해 춤 계의 발전에 청신호를 올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젊은 안무자 창작 공연>과 신진 예술가 지원이었다. 이밖에 문예인 해외 연수 지원과 신인발표회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다.

무용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제 교류 지원은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과 관련 그 비중이 더 높아져야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0년대 들어서야 지원 건수에서나 지원금 배정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문예진흥원의 국제 교류 사업은 국제회의 참가 및 행사 교류와 국내 단체의 국제 페스티벌 초청공연과 우리 나라 춤 단체의 해외 공연 등 공연 교류, 그리고 최근 시행한 계기성 우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그 골격을 이루었다.

무용 강습회 및 연구활동 지원

무용 강습회 지원, 춤 전문지 발간사업 지원, 무용평론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었으나 다른 부문의 지원액에 비해 비중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지난 32년 동안의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이 한국 문화 예술계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춤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 또한 적지 않게 지적됐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 문화예술계의 흐름과 국내 문화예술계의 변화양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문예진흥원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성 높은 쪽으로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책에 너무 안주해 있고, 우수한 춤 단체와 그렇지 않은 춤 단체에 대한 차별화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초연 작품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지원 체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술위원회의 출범과 지원정책

현재 한국 문화예술계의 최대 관심은 이달 말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에 쏠려 있다. 지난 30년 넘게 한국 문화예술계의 지원 업무를 총괄했던 문예진흥원이 해체되는 대신 새로 생겨난 예술위원회는 1천 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의 집행 등 향후 대한민국 문화예술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의 신설을 계기로 문화예술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틀이



1992년 한국 춤 창작활동의 기폭제가 된 <전국무용제>의 공연 장면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술 위원회를 통한 정책 운용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 또한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넣는 플러스 요인이다.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지원정책은 크든 작든, 기존 정부의 문화정책과 연계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의 정책 운용의 최종 목표점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가 이미지 고양'이란 쪽으로 잡혀져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을 전제로,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기존처럼 예술가들과 예술단체에 기금을 배분하고 형식적으로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의 틀을 무조건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운 개혁을 소리쳐서도 안 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조정과 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변혁을 꾀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국에 산재한 120여 개가 넘는 문예회관 중 1년에 50일 이상 가동되는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이들 공연장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공연, 교육,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등)을 보완, 전 국민의 문화예술 생활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정책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만이 지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공공 공연장의 대관료를 낮추어 주고, 유능한 기술 스태프진들을 상주하게 하고, 충분한 훈련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 공간을 확충해 주는 것 역시 예술가들을 위하고 예술 작품의 질을 높이는 지원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집행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예술위원회로 이관되는 데다 특히 정부가 무게를 실어 운용할 예정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등 정부의 문화정책 기초와 연계성을 살려 전체적인 틀을 짜는 작업은, 예술위원회 출범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예술위원회가 시행해야 할 지원정책 개편의 중심은 정부가 중점 시행하는 문화정책과의 연계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 각 지원 사업 간의 조정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안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적 정책 운용, 환경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탄력적 정책 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은 좁게는 한국내의,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 각 지역의 문화발전을 고려한 운영, 넓게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예술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양 보다는 질이 무게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서 제시한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란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은 현재의 한국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장기적, 때로는 중기적, 그리고 때로는 단기적인 운용의 묘가 발휘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춤 예술 분야 역시 이 같은 정책 운용의 기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부터 시행한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의 보육원 시설, 아동을 대상으

로한 문화나눔 교육과 무용강사 인력풀제는 예술교육의 사회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의 창의력 함양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로또 복권 기금으로 시행되는 올해의 예술상,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소의 지역 공연, 문예회관 우수 기획 공연 등은 각기 따로 시행될 것이 아니라 조정과 통합을 통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면 보다 더 지원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술위원회의 출범과 달라져야 할 춤 지원 정책

가능성 있는 레퍼토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지원체계, 다양화된 지원 아이템의 개발 없이는 변화하는 세계 예술계의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한다.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검증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확대, 단기 지원체제에서 벗어난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 분명한 성취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세분화된 연구 작업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전략적이고 세밀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새로 출범한 예술위원회의 춤 지원정책 운용에서 고려할 만한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지원의 제일 순위를 질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쪽에 두어야 한다.

- 그 동안 행해 오던 신작 위주, 비슷한 금액을 조금 조금씩 여러 단체에 나누어주는 지원 관행에서 탈피해 예술성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 규모나 지원 기간 등에서 안무가와 춤단체 등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 규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유망한, 이미 검증된 안무가들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시도해야 한다.

- 한국에는 뛰어난 무용수들은 많지만 유능한 안무가는 부족하다. 유능한 안무가의 확보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안무가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은 만큼 유

능한 안무가 양성을 위한 단계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1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순차적인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선발된 안무가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후에는 국내에서 작품 제작의 기회를 주고, 안무력이 검증된 경우에는 이후 직업 무용단 등에서 안무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안무가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 세계 무대에서 안무가와 단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유명 예술 페스티벌과 유명 극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고, 해외에서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해외 언론을 이용해 이들의 작업을 적극 알리게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 후속 사업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 타이페이의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과 일본의 산카이 주쿠 등은 이 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세계 무대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경우이다.

공연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현금을 직접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연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주고,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배정해주며, 대관료 부담을 낮추어 주고, 유능한 무대 기술 스태프들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술가들과 관객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춤 국제교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의 춤을 배울 수 있는 춤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 무용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의 무용예술을 그대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정책일 수가 있다. 이제 는 외국인들이 직접 우리 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춤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

도록 재외 문화원을 중심으로 정규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외국의 학교에서 한국 춤에 관련된 학과목이 정식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진출 무용수들을 지원해야 한다.

- 현재 외국에서 무용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나라 무용수들의 숫자는 400여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외국의 직업 무용단에 입단한 무용수들의 숫자는 7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메이저 발레단의 주역급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고, 비록 컴퍼니의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주역급 무용수로 컴퍼니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들도 있다. 주로 클래식 발레 쪽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이 컨템포러리 댄스 쪽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은 범 춤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나라 무용수들의 해외진출은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춤 교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공연 교류에서부터 무용수들의 교류, 나아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교환에서부터 공동 프로젝트까지도 가능해진다. 세계 여러 나라의 컴퍼니에서 활약하는 한국 출신의 무용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무용계의 위상은 그만큼 강화될 것이며 한국 무용계의 국제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 된다. 바로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무용 지도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훌륭한 예술가 양성은 훌륭한 지도자의 확보와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무용계는 무용 지도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재교육 과정과 함께 새로운 교육 메소드

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별도의 지도자 교육 센터를 건립하거나 공공 극장의 부설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래의 공연예술 관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연장을 찾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공연예술과 가깝게 하는 것은 창의력 개발과 정서 순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링컨센터나 케네디센터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 공연장들과 예술 단체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저렴한 입장료로, 질 높은 공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시도해야 한다.

실버 세대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장년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섰다. 20년 후에는 25%에 이를 전망이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장년 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 이들이 손쉽게 춤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강습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주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을 위한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심의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심의위원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 보다 전문성과 판별력을 갖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대신 이들에게 선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